

주요용어 : 흡연, 금연, 성 만족도

남성들의 흡연과 성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 성 레* · 장 성 옥** · 서 경 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학의 발달과 보다 나은 건강관리로 인하여 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이 1970년대 59.8세였던 것이 2000년 현재는 72.1세로 증가되었으며 2010년과 2020년에는 각각 73.3세 그리고 74.5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8, 2001). 이렇듯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이 질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적욕구는 건강여하를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기본욕구로서 최근 삶의 질에 있어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속성상 드러내기 쉽지 않고 성 문제를 터부시하는 문화적 영향으로 대부분 무시되거나 간과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Sohn et al., 2002). 따라서 앞으로 남성들의 성 만족에 대한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40-50세 이후부터는 남성들에게 있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며 발기 기능이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남성들

의 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Gray, Feldman, McKinlay & Longcope, 1991). 이러한 남성호르몬의 변화 외에도 남성들의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운동, 음주, 흡연, 콜레스테롤 섭취 정도 등의 생활습관을 들 수 있다(Baum, 2001). 이 중 흡연은 니코틴의 테스토스테론 분비감소 작용으로 성 기능을 약화시켜 성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pangler, 2001; Grace, 2001). 그러나 금연은 남성들의 노화과정에서 성 기능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Butler, Lewis, Hoffman & Whitehead, 1994), 젊은 나이의 금연은 성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킨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어(Jeremy & Mikahilidis, 1998) 남성, 특히 젊은층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중매체를 통하여 흡연이 성 기능에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계몽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특성상 성 욕구 감퇴, 발기 부전 등과 같은 현상은 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성 흡연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 있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중년기 남성들 사이에 정력제로 알려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삼육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조교수

투고일 2003년 3월 18일 심사회의일 2003년 3월 18일 심사완료일 2003년 10월 20일

진 다양한 상품들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성 만족에 대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남성들의 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비뇨기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Sung, Kim & Kim, 2002) 흡연과 성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대한 중재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들의 흡연과 성 만족도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자칫 소홀해지기 쉽고 불편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교육에 부족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성기능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들의 흡연과 이에 따른 성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남성들의 현재 흡연여부에 따른 성 만족도를 비교한다.
- 2) 남성들의 흡연 경험 여부에 따른 성 만족도를 비교한다.
- 3) 남성들의 흡연량에 따른 발기유지능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 4) 남성들의 니코틴의존도에 따른 오르가즘 만족도를 비교한다.
- 5) 발기능력에 따른 대상자들의 금연고려 정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성 만족도 : 부부간의 성 생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에 대한 남성의 주관적 기대와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서 5문항으로 구성된 Arizona Sexual Experience Scale(McGahuey et al., 2000)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만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흡연여부 : 현재 흡연하고 있는 남성(current smoker)과 현재 흡연하고 있지 않은 남성(current non smoker, 비흡연자와 금연자)을 의미한다.

흡연경험여부 : 평생 한번도 흡연한 경험이 없는 남성(never smoker)과 현재 흡연자를 포함하여 과거 흡연한 경험이 있는 남성(ever smoker)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성들의 흡연과 이에 따른 성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2년 5월 10일부터 2002년 6월 2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내 4대 주요일간지 중 일개 일간지 홈페이지를 방문한 대상자 중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남성 772명중 본 연구 대상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미혼남성과 50세 이상 남성 137명을 제외한 635명이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2002년 5월 10일부터 2002년 6월 21일까지 국내 4대 주요 일간지 중 일개 일간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생활에 대한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이며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보다는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주 참여한 대상자들 중 추첨을 통하여 금연학교 입소 권을 소정의 선물로 사례하였다.

4. 연구도구

남성들의 성 만족도를 사정하기 위해 사용된 성 만족도 도구는 미국 Arizona 대학에서 개발된 아리조나 성 경험 측정도구(Arizona Sexual Experience Scale, ASSES)(McGahuey et al., 2000)를 이용하였다. ASSES 도구는 남성들의 성 경험 측정도구이지만 문항의 내용을 보면, 성적욕구정도, 성적 충동여부, 발기유지능력정도, 오르가즘도달여부, 오르가즘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성 경험점수가 높으면 성 만족도도 높다고 가정할 수 있어 성 만족도 측정에 적절하다고 사료되었다. 도구는 모두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적인 욕구가 '매우 강하다(1점)'부터 욕구가 '전혀없다(6점)'까지의 선택형 문항으로 되어있었으나 해석상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적인 욕구가 '매우 강하다'를 6

점, '전혀없다'를 1점으로 변환하여 코딩 처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성 만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니코틴 의존도는 한국어판 Fagerstrom 니코틴 의존도 사정도구(Korean Version of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FTQ)(Ahn, et al., 2002)를 이용하였다. FTQ는 총 8문항으로 그 중 3 문항은 0-2점, 나머지 5 문항은 0-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 도구의 점수 범위는 전혀 중독되지 않은 0점부터 최고로 중독된 11점까지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판니코틴의존도설문도구의신뢰도검사에서는 신뢰도가 .6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66으로 나타났다.

흡연량은 Ahn 등(2002)의 사전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호기중 일산화탄소 농도에 차이를 보였던 일일 흡연 개비 분류에 따라 대상자들의 일일 평균 흡연량을 1-15개비, 16-24개비, 25개비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발기유지 능력은 ASES 설문 중 '발기가 쉽게 이루어지며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의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매우 쉽다', '쉽다', '쉬운 편이다'는 '쉽다'로, '힘든 편이다', '힘들다', '전혀 할 수 없다'는 '힘들다'로 구분하였다.

오르가즘 만족은 ASES 설문 중 '오르가즘이 만족스러우십니까?'의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매우 만족', '만족',

'만족하는 편이다'는 '만족'으로,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불만족',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는 '불만족'으로 구분하였다.

대상자들의 금연고려는 DiClemente등(1991)의 4가지 변화단계(Stages of Change)인 고려 전(pre-contemplation), 고려(contemplation), 준비(action), 유지(maintenance)단계 중 '고려 전 단계'를 '금연생각 없음', '고려'단계를 '6개월 이내 금연', '준비단계'를 '30일 이내 금연'으로 구분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로 구하였고 각 그룹간의 차이는 χ^2 검정과 t-검정으로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구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자료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의 중복참여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었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Table 1> Homogeneity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 the subjects (N=635)

Variables	Current non-smoker	Current smoker	χ^2	p
	n=331(100%)	n=304(100%)		
Age				
20-29	13(3.9)	18(5.9)	1.36	.507
30-39	165(49.8)	149(49.0)		
40-49	153(46.3)	137(45.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3)	0	4.16	.385
middle school	1(0.3)	1(0.3)		
high school	42(12.7)	44(14.5)		
college	218(65.9)	212(69.7)		
graduate school	69(20.8)	47(15.5)		
Religion				
protestant	79(23.9)	60(19.8)	2.98	.395
buddhist	59(17.8)	60(19.7)		
catholic	38(11.5)	28(9.2)		
others	155(46.8)	156(51.3)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 대는 30대가 314명(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90명(45.6%), 20대 31명(4.9%)순이었다. 대상자들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30명으로 전체 대상자들 중 67.7%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원을 졸업한 대상자가 116명(18.2%), 고등학교 졸업이 86명(13.6%), 중학교 졸업이 2명(0.3%)이었으며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대상자는 1명(0.1%)이었다. 대상자들의 종교는 기독교인(개신교인) 139명(21.9%), 불교인 119명(18.8%), 천주교인 66명(10.4%)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현재 흡연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이용하여 두 그룹의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두 그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들의 흡연경험여부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현재 흡연 여부에 따른 성 만족도 비교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흡연하고 있는 남성들(304명)과 현재흡연하고 있지 않은 남성들(331명) 간의 성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55, p>.05$). 그러나 오르가즘에 얼마나 쉽게 도달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현재 흡연하고 있는 그룹이 오르가즘에 더 쉽게 도달한다고 응답하여 두 그룹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5, p<.05$).

달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현재 흡연하고 있는 그룹이 오르가즘에 더 쉽게 도달한다고 응답하여 두 그룹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5, p<.05$).

3. 흡연 경험 여부에 따른 성 만족도 비교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들(481명)의 성 만족도와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들(154명)의 성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이들의 성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0, p<.05$). 즉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들의 성 만족 평균점수는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들의 성 만족도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그룹의 성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을 분석한 결과, '성적 충동을 쉽게 받는가?'하는 질문과 '발기가 쉽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들과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7, p<.05; t=2.60, p<.05$)<Table 3>.

4. 흡연량에 따른 발기유지 능력의 비교

<Table 2> Sexual satisfaction between current smokers and nonsmokers (N=635)

Questions	current nonsmoker	current smoker	t	p
	(n=331) M(SD)	(n=304) M(SD)		
How strong is your sex drive?	4.43(.90)	4.40(.94)	.47	.637
How easily are you sexually aroused?	4.55(.86)	4.54(.94)	.23	.816
Can you easily get and keep an erection?	4.65(.83)	4.62(.91)	.45	.652
How easily can you reach an orgasm?	4.55(.81)	4.69(.84)	-2.15	.032*
Are your orgasm satisfying?	4.56(.89)	4.65(.99)	-1.26	.207
(total) Sexual satisfaction	22.74(3.20)	22.88(3.42)	-.55	.584

*p <.05

<Table 3> Sexual satisfaction between never-smokers and ever-smokers (N=635)

Questions	never smokers	ever smokers	t	p
	(n=154) M(SD)	(n=481) M(SD)		
How strong is your sex drive?	4.53(.93)	4.37(.91)	1.87	.061
How easily are your sexually aroused?	4.68(.80)	4.50(.93)	2.07	.039*
Can you easily get and keep an erection?	4.79(.76)	4.58(.89)	2.60	.010*
How easily can you reach an orgasm?	4.66(.81)	4.61(.83)	.66	.507
Are your orgasm satisfying?	4.64(.90)	4.59(.95)	.54	.591
(total) Sexual satisfaction	23.29(3.04)	22.65(3.38)	2.10	.036*

* p< .05

일일 흡연량에 따라 대상자들을 비흡연(334명), 일일 평균 흡연량 15개비 이하(138명), 16-24개비(134명), 25개비 이상(29명)흡연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의 흡연량에 따른 발기유지 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대상자들의 흡연량에 따라 발기유지 능력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chi^2=11.64$; $p<.01$)<Table 4>.

평생 한 번도 흡연경험이 없는 비흡연자들의 경우 93.1%에서 성 관계 시 자신의 발기유지가 쉽다고 응답한 반면, 일일 15개비 이하 흡연가 집단에서 88.4%, 16-24개비에서는 92.5%, 25개비 이상을 흡연하는 집단에서는 75.9%에서 발기유지가 쉽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일일 흡연량에 따라 발기유지가 어렵다고 느끼는 대상자들은 흡연량 정도에 따라 6.9%, 11.4%, 7.5%, 24.1%로 흡연량이 많은 그룹에서 발기 유지가 힘들다고 응답한 대상자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니코틴의존도에 따른 오르가즘 만족의 비교

니코틴 의존도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니코틴 의존 정도가 1-4점인 대상자들을 Very mild, 5점인 대상자를 Mild, 6점인 대상자를 Moderate, 7점을 Severe로 나

누어 그들의 오르가즘 만족 여부를 분석하였다<Table 5>. 그 결과 니코틴 중독 정도에 따라 오르가즘 만족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98$, $p<.01$). 본연구결과가 니코틴 의존정도에 따른 오르가즘 만족의 내림차순 관계를 만족하지 못하였어도 Very mild하게 중독된 447명의 대상자들 중 53.0%가 만족을, 47.0%가 불만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Mild하게 중독된 대상자 49명 중 32.7%가 만족을, 67.3%가 불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Moderate하게 중독된 38명의 대상자 중 44.7%가 만족을, 55.3%가 불만족 하다고 응답하였으며, Severe하게 중독된 71명 중 36.6%가 만족을, 63.4%가 불만족 한다고 보고 한 것을 볼 때 심하게 중독된 대상자들에게서 오르가즘에 불만족하는 대상자들이 많을 것을 알 수 있었다.

6. 발기유지 능력에 따른 대상자의 금연 고려

흡연하는 대상자 총 304명 중 금연고려부분에 응답하지 않은 4명의 대상자를 제외한 3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기유지가 '쉽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67명, 발기유지가 '어렵다'고 응답한 대상자 수는 33명이었다. 발기

<Table 4> Erectile ability according to the number of cigarette smoked (n=635)

number of cigarette smoked	be easy n(%)	be difficult n(%)	χ^2	p
non-smoker (n=334)	311(93.1)	23(6.9)	11.64	.006**
< 15 (n=138)	122(88.4)	16(11.4)		
16-24 (n=134)	124(92.5)	10(7.5)		
>25 (n=29)	22(75.9)	7(24.1)		

** p< .01

<Table 5> Orgasm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nicotine dependence (n=635)

level of nicotine dependence	satisfied n(%)	not-satisfied n(%)	χ^2	p
Very mild (n=477)	253(53.0)	224(47.0)	12.98	.004**
Mild (n=49)	16(32.7)	33(67.3)		
Moderate (n=38)	17(44.7)	21(55.3)		
Severe (n=71)	26(36.6)	45(63.4)		

** p< .01

<Table 6> Consideration of smoking cessation according to erectile function (n=635)

erectile function	stop within 30 days n(%)	stop within 6 months n(%)	will not stop n(%)	χ^2	p
be easy (n=267)	77(28.8)	102(38.2)	88(33.0)	9.16	.017*
be difficult(n=33)	18(54.5)	7(21.2)	8(24.2)		

* p< .05

유지가 '쉽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30일 이내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들은 28.8%인 반면 발기유지가 '어렵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서는 54.5%가 30일 이내에 금연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흡연하는 대상자 중에도 그들의 발기유지 능력정도에 따라 금연을 고려하는 시기와 대상자의 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chi^2=9.16$, $p<.05$)<Table 6>.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을 현재 흡연하는 그룹과 현재 흡연하고 있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성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두 그룹 사이의 성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상자들의 흡연경험 여부 즉 흡연그룹과 비 흡연그룹에서는 성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성만족정도는 현재의 흡연여부 보다는 흡연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르가즘에 쉽게 도달하는지 여부에서는 현재 금연하는 그룹에 비해 현재 흡연하는 그룹에서 더 쉽게 도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금연한다고 응답한 대상자 331명중 154명을 제외한 나머지 177명은 과거 흡연하였던 대상자들이었으며 이들의 금연이유로 건강상 문제를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평생 흡연을 하지 않았던 비 흡연그룹의 대상자들은 발기가 쉽게 이루어지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거 흡연자들(현재는 금연자)까지 포함한 흡연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쉽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젊은 시절의 흡연 경험이 이후에 금연을 하더라도 그들의 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중년기의 금연하는 것은 발기부전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고된 Derby 등(2000)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금연 후 발기부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Feldman et al., 1994; Jeremy & Mikahilidis, 1998)와는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흡연 여부와 발기기능정도 그리고 성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검증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량에 따른 발기유지 능력정도를 평가한 결과 일일 흡연량이 25개비 이상인 그룹에서는 성 관계 중 발기유지가 쉽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75.9%였던 반면 비 흡연 그룹에서는 93.1%가 쉽다고 응답하여 일일 흡연량에 따라 자신의 발기유지 능력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95.1%는 30, 40대로 아직 갠

년기 증상을 경험할 나이가 아니지만 일부 대상자들이 발기유지가 어렵다고 밝힌 것은 40대 이후부터 나타나는 남성 호르몬 감소에 따른 갠년기 증상보다는 다른 어떤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Tan & Phillip, 1999) 이러한 차이가 흡연량이 많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흡연이 성선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켜 결과적으로 혈중 테스토스테론을 낮춘다는 Vermeulen(1993)의 연구, 그리고 흡연이 남성의 갠년기 증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며(Tan & Phillip, 1999),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uennenmann et al., 1987; Feldman, Goldstein, Hatzichristou, Kran & McKinlay, 1994; Manninio, Klevens & Flanders, 1994; Green et al., 2001; Spangler, Summerson, Bell & Konen, 2002). 또한 일일 흡연량이 많았던 대상자에게서 발기기능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는 Hirshkowitz와 Karacan 그리고 Howel(1992)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흡연량을 비 흡연, 일일 15개비 이하, 16-24개비, 25개비 이상으로 구분한 것은 Ahn 등(2002)의 니코틴 의존도 설문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연구에서 대상자의 흡연량을 15개비 이하, 16-25개비, 26개비 이상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을 때 일일 흡연량에 따라 호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에 기초한 것이다.

니코틴 의존도에 따른 오르가즘 만족정도는 대상자들의 니코틴 의존도 총점을 7점(Very severe)이상, 6점(Moderate), 5점(Mild), 1-4점(Very mild)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보편적으로 7점 이상은 의존도가 매우 높고, 5-6점은 높은 편이며, 0-4점은 의존도가 낮은 편으로 해석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01; Fagerstrom, 1978). 본 연구에서는 니코틴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는 그룹에서 대상자중 36.6%가 성 경험 시 오르가즘이 만족스럽다고 보고한 반면 니코틴에 매우 경하게 중독된 그룹에서는 53.0%가 만족스럽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발기부전이 심해해진다는 연구(Tan & Phillip, 1999; Hirshkowitz, Karacan & Howel, 1992), 그리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발기 부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Feldman et al., 1994; Green et al., 2001)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

한 발기기능 만족과 오르가즘 만족은 남성들만이 느끼는 주관적 느낌이라고 만은 할 수 없으며 이들 배우자인 여성들의 성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남성들의 흡연과 배우자인 여성들의 성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흡연자의 발기유지 능력정도에 따라 대상자들의 금연 고려여부를 분석한 결과 발기유지가 어렵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75.7%가 6개월 혹은 30일 이내에 금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기유지가 쉽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는 67.0%만이 금연을 고려하고 있어 발기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자들이 금연을 더욱 시급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발기유지의 어려움이 흡연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은 물론, 30일 이내에 금연을 고려한다는 것은 금연의 동기화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이 성 만족도 및 발기부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금연동기화를 고려할 때 성 만족도가 낮거나 발기 부전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에게 금연전략에 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남성들의 금연률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이 전체 흡연자의 92.1%이며 이들의 대부분이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여 오래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Industri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992). 따라서 흡연하고 있는 모든 남성에게 흡연이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임을 교육함은 물론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기 전 그 해악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교육해야 하는 의료인력 및 교사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흡연과 발기부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니코틴 의존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66으로 다소 낮은 경향이 있으나 도구의 문항수가 8문항으로 비교적 적고 현재 흡연하고 있는 동질적인 대상자들만이 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렇게 문항수가 적고, 현재 흡연자들만 응답하도록 구성된 니코틴 의존도 측정도구의 특성 때문에 과거 이 도구를 이용하였던 다른 연구(Chen et al., 2002)에서도

신뢰도가 .42-.67로 낮게 나타난바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성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따라서 자료 수집된 대상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능력이 있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99.6%), 5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자료의 타당성 문제도 의심될 수 있겠으나 성적 문제라는 연구 개념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응답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극대화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숨겨져 있던 남성의 흡연과 성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금연 교육 및 성 기능 장애 예방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추후에는 흡연시작시기와 흡연량에 따른 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 흡연남성의 배우자나 흡연여성의 다양한 집단을 표본으로 한 반복연구, 면대면 조사연구 그리고 흡연자들의 성 만족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성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성들의 흡연과 이에 따른 성 만족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자칫 소홀히 되기 쉽고 불편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교육에 부족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성기능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635명이었으며 그 중 현재 흡연자는 304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02년 5월 10일부터 2002년 6월 21일까지 국내 4대 주요 일간지 중 일개 일간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현재 흡연하고 있는 남성들(304명)과 현재 흡연하고 있지 않은 남성(비 흡연포함)들(331명) 간의 성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55, p>.05$). 그러나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들(481명)의 성 만족도와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남성들(154명)의 성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이들의 성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들($M=22.65, SD=3.38$)이 흡연 경험이 전

혀 없는 남성들(M=23.29, SD=3.04)보다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흡연량에 따른 발기유지 능력에서는 흡연량이 많은 그룹에서 자신의 발기유지가 힘들다고 응답한 대상자 수가 쉽다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니코틴 의존 정도에 따라서도 대상자들의 오르가즘 만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98$, $p<.01$). 흡연하는 대상자 중 발기유지 능력에 따른 금연 고려 여부를 분석한 결과 발기유지가 힘들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54.5%가 30일 이내 금연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흡연하고 있는 남성들에게 흡연이 성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발기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흡연과 성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며 남성의 흡연이 배우자의 성 만족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흡연시작시기와 흡연량, 그리고 흡연기간에 따른 성 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hn, H. K., Lee, H. J., Jeong, D. S., Lee, S. Y., Kim, S. W., & Kang, J. H. (2002).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questionnaire for nicotine dependence. *J Korean Acad Fam Med*, 23(8), 999-1008.
- Baum, N. (2001). Erectile dysfunction. *Consultant*, 41(12), 1573-1581.
- Butler, R., Lewis, M., Hoffman, E., & Whitehead, E. (1994). Love and sex after 60: how to evaluate and tract the sexually-active woman. *Geriatrics*, 49(11), 33-4, 37-8, 41-2.
- Chen, X., Zheng, H., Steve, S., gong, J., Stacy, A., Xia, J., Gallaher, P., Dent, C., Azen, S., Shan J., Unger, J., & Johnson, C. (2002). Use of the Fagerstrom tolerance questionnaire for measuring nicotine dependence among adolescent smokers in China. A pilot study. *Psycho Addic Behav*, 16(3), 260-263.
- Derby, C., Mohr, B., Goldstein, I., Feldman, H., Johannes, C., & Mckinlay, J.(2000). Modifiable risk factors and erectile dysfunction: can lifestyle changes modify risk?. *Urology*, 56(2), 302-6.
- DiClemente, C. C. Prochaska, J. O., Fairhurst, S., Velicer, W. F., Rossi, J. S., & Velasquez, M. (1991). The process of smoking cessation: An analysis of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and contemplation/action. *J of Consul and Clinical Psycho*, 59, 259-304.
- Feldman, H., Goldstein, I., Hatzichristou, D., Kran, R., & Mckinlay, J. (1994). Impotence and its medic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results of the 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 *J Urol*, 151, 54-61.
- Grace, D. (2001). Is smoking a cause of erectile dysfunction? a literature review. *Br J Nurs*, 10(7), 455-465.
- Gray, A., Feldman, A., Mckinlay, J., & Longcope, C.(1991). Age, disease and changed sex hormone levels in middle age men: result of the 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 *J Clin Endocrinol*, 73, 1016-1023.
- Green, J., Holden, S., Ingram, P., Bose, P., St George, D., & Bowsher, W.(2001). An investigation of erectile dysfunction in Gwent, Wales. *BJU-Int*, 88(6), 551-3.
- Hirshkowitz, M., Karacan, I., & Howell, J. (1992). Nocturnal penile tumescences in cigarette smokers with erectile dysfunction. *Urol*, 39(2), 101-7.
- Jeremy, J., & Mikahilidis, D. (1998). Cigarette smoking and erectile dysfunction. *J Res Soc Health*, 118(3), 151-5.
- Juenenmann, K., Leu, T., Luo, J., Benowitz, N., Abozeid, M., & Tanagho, E. (1987). The effect of cigarette smoking on penile erection. *J Urol*, 138(2), 438-41.
- Kang, Y. (1999). *Male Menopause Clinic, Patient Education*. Korea Male Menopause Academic Association conference(Aug. 29,

- 1999), 81-91.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1). Putting Away Cigarettes. Smoking Cessation Guideline, KIHASA, 36-37.
- Korea Male Menopause Academic Association (1999). *1999 Korea Male Menopause Academic Association Conference*. Korea Male Menopause Academic Association (Aug. 29, 1999).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8). *Projection of future population*.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Projection of future popul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992). *Study on the Saleprice and Marketing Strategy of Cigaretts*. Korea Tobacco & Ginseng Corp.
- Lewis, R., & Mills, T. (1999). Risk factors for impotence. In Carson, C., Kirby, R., Goldstein, I. eds. *Textbook of Erectile Dysfunction*. Isis Medical Media, Oxford.
- Mannino, D., Klevens, R., & Flanders, W. (1994). Cigarette smoking: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impotence? *Am J Epidemiol*, 140(11), 1003-8.
- McGahuey, C., Gelengerg, A., Laukes, C., Moreno, F., Delgano, P., Mcknight, K., & Manber, R. (2000). The Arizona Sexual Experience Scale(ASEX): reliability and validity. *J of Sex Marital Ther*, 26(1), 25-4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2000 Yearbook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Seoul, Korea.
- Sohn, H. C., Byun, S. S., Park, E. C., Cho, K. S., Cho, M. K., & Kim, S. U. (2002). Prevalence of sexual dysfunction in men older than 40 living in Seoul: epidemiological survey using questionnaire. *Korean J Urol*, 43(1), 52-61.
- Spangler, J. (2001). Smoking, hypertension and erectile dysfunction. *J of Fam Practice*, 50(1), 73.
- Spangler, J., Summerson, J., Bell, R., & Konen, J.(2002). Cigarette smoking and erectile dysfunction. *J of Fam Practice*, 51(1), 81.
- Sung, Y. H., Kim, S. J., & Kim, Y. S. (2002). A study on the validity of a single-item question concerning sexual satisfaction as a screening tool for erectile dysfunction in primary care. *J Korean Acad Fam Med*, 23(11), 1334-1339.
- Tan, S., & Phillip, S. (1999). Perceptions of and risk factors for andropause. *Archives of Andrology*, 43, 97-103.
- Vermeulen, A. (1993). The male climacterium. *Ann Med*, 25(6), 531-4.
- Abstract -
- ### Study on Smoking and Sexual Satisfaction of Male Adults
- Shin, Sung-Rae* · Chang, Sung-Ok**
Suh, Kyung-Hyun***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differences on sexual satisfaction between non-smokers and smokers of Korean adult males.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4 current smokers and 331 current non-smokers(stop smokers, never smokers) (58.0%).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rough a home page advertisement of a brand newspaper company in Korea, and the survey was done through Internet system. The tool to measure participant's sexual satisfaction was adopted from the Arizona Sexual Experience Scale-Male.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Sahmyook University

Result: Participant's age ranged from 20 to 49, mostly in their 30s-40s(96.1%). They were smoking average of 15 cigarettes per da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sexual satisfaction between current smokers and non-smokers($t=-.55$, $p>.05$).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on sexual satisfaction between ever smokers($n=481$) and never smokers($n=154$) ($t=2.10$, $p<.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n erectile and orgasm satisfaction according to number of cigarettes they smoked per day. 54.5% smokers who said

that they have difficulty in keeping erectile state considered on smoking cessation within 30 days whereas 24.2% in those who said that keeping erectile state was easy. Conclusion: Informing about the high risk of sexual dysfunction with cigarette smoking should become a important part of smoking cessation education and for smoking adolescents.

Key words : Smoking, Smoking cessation,
Sexual satisfaction